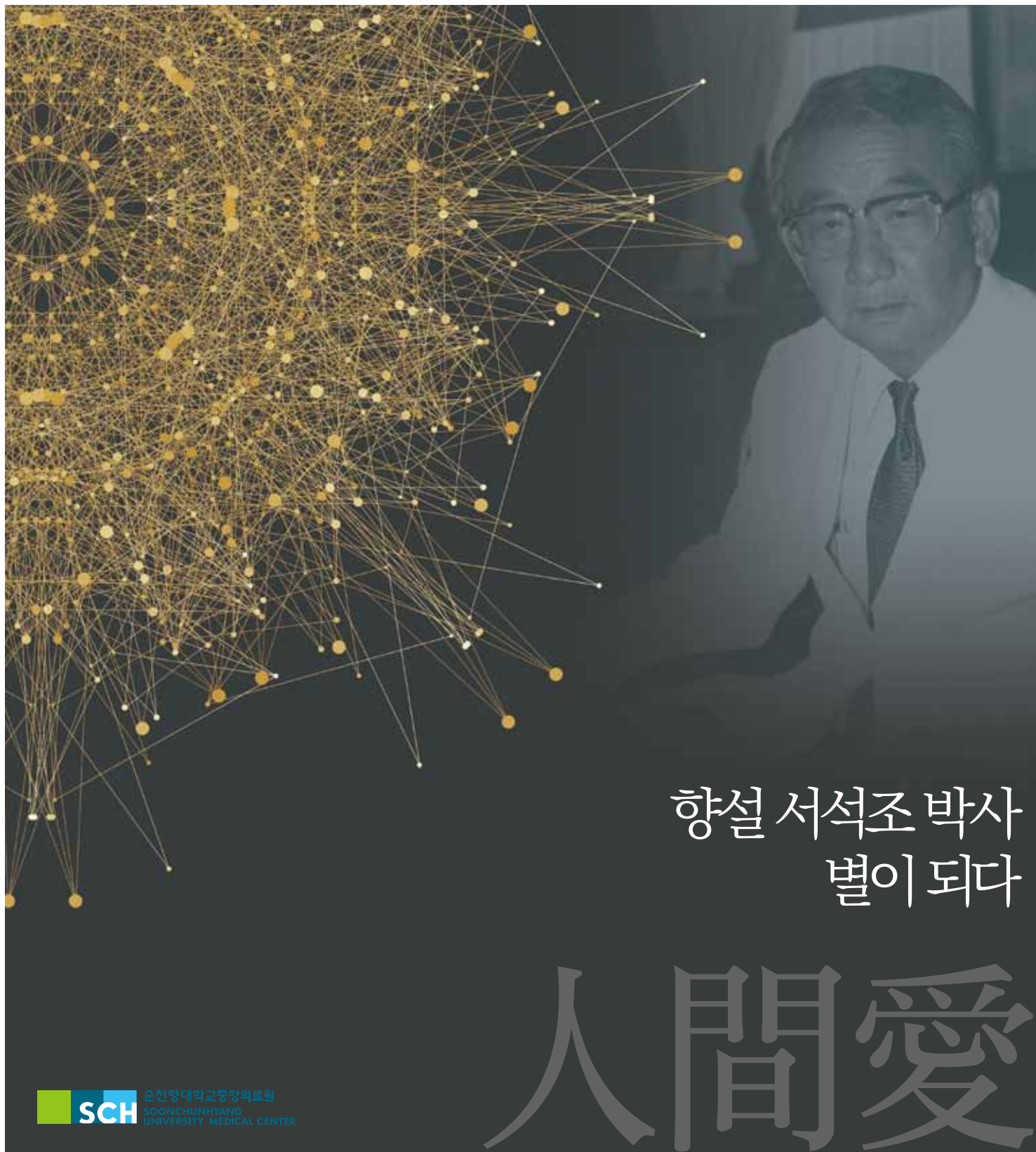


11/12 NOVEMBER/DECEMBER 2017
통합의료원보 vol.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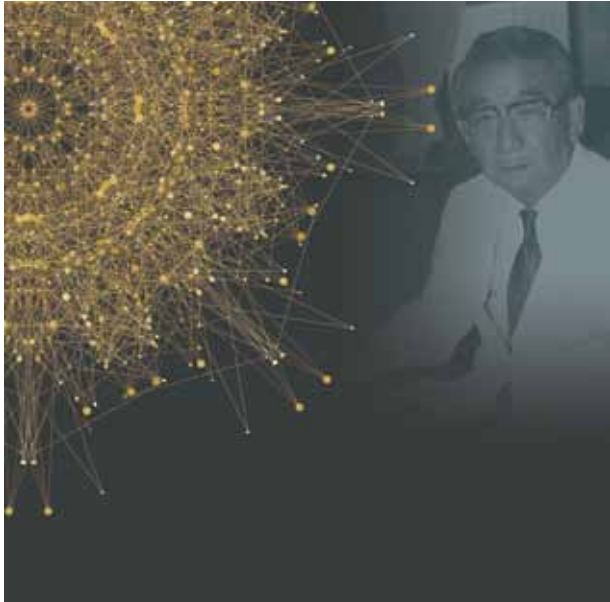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향설 서석조 박사
별이 되다

人間愛



항설 서석조 박사,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되다

항설 서석조 박사의 오디세이가 벌써 1년의 대 여정을 마치게 됐다. 항설 박사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을 배웠고 ‘인간사랑’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깨달았다. 여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혼돈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곳곳이 ‘순천향’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는 순천향인 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

바로잡습니다

본보 43호 32면 ‘동문탐방’ 기사 중 이성운 일산중심병원장은 이상운 일산중심병원장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순천향〉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TEL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인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02

Prologue

항설 서석조 박사 오디세이(Odyssey)를 마치며

04

Special

감동 스토리 ‘나를 살린 순천향’



06

Issue 1

국내 최단기간 다빈치Xi 로봇수술 200례 달성



08

Issue 2

구미병원, 햇살아이지원센터

10

Focus 1

서울병원,

로봇수술기 다빈치Xi 첨단 수술대와 만나다

12

Focus 2

천안병원, 환자안전의 달 10월 ‘올인’

14

Special Family

염정원 부천병원 간호사 ‘조혈모세포’ 기증



16

Field

천안병원 뇌졸중센터



20

Doctor

원종호 서울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



22

New Medicine 1

홍삼성분 ‘진세노사이드 Rg3’
C형간염 바이러스 억제효과

24

New Medicine 2

홍·복부 대동맥류 치료 신의료기술 도입

26

New Medicine 3

소아 저신장증의 성장호르몬 치료

28

New Medicine 4

코피 지혈에 경도관동맥색전술 치료

30

Knowledge 1

보청기·인공와우 임플란트로 해결

31

Knowledge 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주의보

32

Knowledge 3

암환자 삶의 질 높이는 ‘암 재활치료’

33

Knowledge 4

어린이 언어장애

34

Medi Column

인공지능 시대, 환자가 찾는 병원이 되려면

36

Health & Food

생(生)일 때보다
익혀야 영양소가 풍부해지는 채소

38

Travel

가야산 소리길



40-47

News

Schedule

Dr poem



향설 서석조 박사 '오디세이(Odyssey)'를 마치며

향설 서석조 박사의 오디세이가 벌써 1년의 대 여정을 마치게 됐다. 향설 박사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을 배웠고 '인간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혼돈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곳곳이 '순천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는 순천향인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보니 단군 이래 올해만큼 역사에 기록할 사건을 많이 남긴 해도 분명 없을 듯하다. 다행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세월을 앞세우며 역사의 뒤편 길로 어김없이 흘러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모두가 세월이라는 자연 치유 약으로 견뎌내고 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분명 얻는 것이 있는 게 우리네 인생사다. 때문에 가는 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 최소한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년엔 올해보다 더 많은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은 기억과 인연은 빨리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노래가사에서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죠'라는 가사가 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좋지 못한 추억도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의미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순천향의 미래는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설립 이념인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진정으로 환자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앙프레프레 너 순천향을 지향하는 순천향인의 올바른 자세다. SCH

김정식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킨 소중한 이름, '어머니'

자궁경부암의 근치적 제거로 젊은 여성에게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선물하다

어머니.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세 글자가 아닐까? 혹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표현한다.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인 어머니란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김정식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킨 어머니의 이름, 그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본다.



김정식 교수가 자궁을 살리는 자궁경부암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시간 수술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다는 자부심'

지난 10월 중순, 32세 여성 환자가 김정식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찾아왔다. 다른 병원에서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이채민 환자였다. 김 교수가 재차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 수술을 기본으로 한 치료가 진행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자궁경부암 수술은 나팔관을 포함한 자궁 전체를 적출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환자의 경우 아직 미혼인 여성이었기에 오랜 고민 끝에 '가임력(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맞추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자궁의 몸체와 주위의 신경 및 혈관을 보존하면서 자궁경부의 근치적 제거 수술'이었다. 쉽게 말해 자궁 입구에 해당하는 경부의 병변(암)만을 제거함으로써 자궁의 기능을 고스란히 살리고자 한 것이다. 향후 혼인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김 교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행복을 빼앗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물론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진의 수고로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은 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강경 로봇 수술로 진행된 해당 수술은 수혈도 없이 무려 10시간 30분이 소요됐다. 병변이 생긴 자궁 경부의 절제는 물론 소변 기능을 비롯한 각종 신경을 살리는 일은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김 교수는 "이번 수술의 핵심은 크게 ▲가임력 유지 ▲신경 보존 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누림과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오랜 시간과 세심한 수술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꼬박 10시간 이상 수술 시야에 집중하면서, 로봇 수술 도구를 사용해 가느다란 신경을 피해가며, 병변만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은 상상조차 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찔하다. 대부분의 자궁경부암 제거 수술시 출혈이 많으며, 신경이 손상되면 방광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특히 이번 수술은 산부인과 수술 중 가장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 모든 난제를 차치하고 환자를 위해 어려운 수



김정식 교수가 퇴원을 앞두고 있는 이채민 씨를 격려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술방식을 선택했다. 환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여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만난 환자의 환한 미소와 기쁨의 눈물은 그의 결정이 절절히 옳았음을 증명해줬다.

여성에게만 허락된 행복 지킬 것

청첩장 든 새 신부 방문 기대해

앞서 언급한 대로 자궁경부암의 수술 방식은 대체로 전체 자궁 적출을 기본으로 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김 교수와 같이 신경을 보존하면서 복강경으로 근치적 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전문의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재발방지와 같은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여성성을 잃는다는 건 차라리 죽음보다 잔인한 일일 터다.

김 교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허락된 행복이다"라며 "그들에게서 여성의 상장을 빼앗는 결정은 최후의 최후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얌디얌은 신경을 피해가며 10시간이 훌쩍 넘는 수술시간을 오롯이 건디는 이유는 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김 교수의 평소 의료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 여성으로서 마땅히 체감해야 할 행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산부인과 부인종양 전문의로서의 사명이자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왔다는 사실에 더없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한명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게 못내 서운하고 아쉽다"며 너스레를 떨어보였다. 청첩장을 들고 오는 곱디고운 새 색시와 신랑의 방문을 기다린다는 김 교수의 순박한 소망은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환자의 입장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김 교수가 살린 것은 비단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다. 그가 여성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미래를 함께 할 남편과 아이들이란 동반자까지 지켜낸 것이다.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김 교수의 기본 좋은 고집이 더없이 든든하게 다가온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이 '다빈치 Xi'로 수술 중인 모습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내 최단기간 다빈치 Xi 로봇수술 200례’ 달성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국내 최단기간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했다. 경인 지역 최초로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한 부천병원은 지난 4월 10일 외과에서 직장암 수술 시행을 시작으로, 11월 15일 비뇨기과에서 근치적 전립선암절제술을 시행해 7개월여 만에 200례를 달성했다.

부천병원은 로봇수술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부터 수술 건수가 월 30여 건씩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여 국내 최단기간인 3개월여 만에 100례를 기록했으며, 이어 7개월여 만에 국내 최단기간 200례를

돌파해 그 성과가 더욱 빛났다. 특히 로봇수술 200건 중, 중증 암환자가 49%(98건)를 차지하여 경인 지역의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부천병원의 연이은 성과는 로봇수술을 도입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로봇정밀내시경수술연구회'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련 진료과와 마취과, 수술실, 행정 지원팀이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한 결과다.

김영호 로봇정밀내시경수술 센터장(비뇨기과 교수)은 “국내 최단기간 로봇수술 100례와 200례를 연이어 달성한 것은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진료과 교수들을 비롯해 다양한 내부 구성원들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인 지역 환자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수술에 대한 안정성 및 빠른 회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안전하고 정확하면서 최소 침습수술이 가능한 로봇수술에 관심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이 의료계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수술 흉터에 민감한 여성 환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았다. 집도 의사가 확대된 입체 영상과 몇 개의 작은 피부 절개만으로 정교한 수술을 진행하며 흉터가 작고 회복기간이 짧은 로봇수술의 특성상, 200건 중 46.5%(93건)가 자궁암·자궁근종 등 산부인과 질환을 앓는 여성 환자들이었다.

이문성 병원장은 “올해 우리 병원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 최첨단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하고, 로봇수술실과 일반수술실을



‘로봇정밀내시경수술연구회’ 회의 모습.



이문성 병원장이 ‘국내 최단기간 다빈치 Xi 로봇수술 100례 돌파’를 기념해 로봇수술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증설하는 등 기존 수술실을 환자 중심의 시설로 새 단장했다. 과감한 투자와 함께 의료진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법 연구에 매진한 결과, 단기간에 로봇수술 200례를 달성했다. 앞으로 로봇수술이 가능한 질환 범위를 넓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명실상부한 ‘경인 지역 로봇수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천병원은 다양한 질환 치료에 로봇수술을 활용하고 있다. 외과는 대장암·직장암·위암 수술을 비롯해 담낭절제술·갑상선절제술 등에 적용하고, 비뇨기과는 전립선암·신장암 수술 등에 시행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자궁암·자궁근종·자궁부속기 수술 등에 적용하고, 이비인후과는 갑상선·경부종양 수술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부천병원은 다빈치 Xi와 연동되는 첨단 수술대 시스템 ‘테이블 모션 테크놀로지’도 아시아

에서 2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함께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로봇수술기가 환자의 몸속에서 수술할 때 실시간으로 최적의 수술대 각도와 위치를 찾고 조정함으로써, 수술 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마취상태 관리 및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을 도와준다. 

국내 최단기간 다빈치Xi 로봇수술 100례 돌파(2017년 7월 21일) 기념 세리머니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의료지원 넘어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만들다



정서학대 접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 손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손목을 자르는 게 낫겠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서 진료 도중 아동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부모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아동은 “그때 칼을 들고 내 손목 자르려고 했잖아”라고 뚜렷이 떠올리면서 말한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 아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동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언행을 하는 것, 형제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아동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것 등은 정서학대에 속한다.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김태우 신장내과 교수, 이하 ‘햇살아이’)는 보이지 않는 폭력,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통합적 아동보호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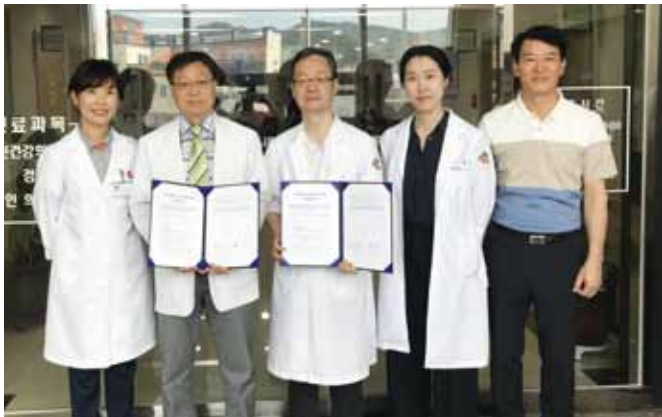
햇살아이로 의뢰된 아동의 대부분은 정서학대 범주에 속한다. ‘아이가

너무 반항적이에요’, ‘자주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가 심하게 썩었어요’, ‘또래 집단과 못 어울려요’, ‘감정조절, 분노조절이 안 되요’, ‘사시라구요? 난시라구요? 몰랐어요’, ‘너무 산만하고 과격해요, ADHD 인가요’라고 아동의 문제행동을 호소한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위기아동에게 심리검사와 상담을 해보면 가정 내에서 조용한 학대, 즉, 정서학대와 방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조직화하는 네트워크

위기아동에게 ONE-STOP 통합지원체제로 신체적 외상(의료비) 지원, 정신적 외상(심리치료) 지원, 부모교육, 찾아가는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사회연계 및 안전망 구축 등이 햇살아이 핵심과업이다. 따라서 위기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햇살아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약한 의료적 접근이 강

기관 협약, 자원발굴을 통해 아동 및 부모 정신건강서비스를 증진한다.



위기아동 솔루션 회의로 통합적 지원방법을 논의한다.



사회복지 우수사례(위기아동 통합 지원 프로젝트)대상 수상



센터대표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위기아동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한다.

점인 단체이다. 시청, 경찰서, 학교, 주민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여러 기관이 햇살아이로 아동의 신체적 치료, 심리치료를 도와달라고 의뢰한다. 햇살아이는 구미병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아동가정에 즉각 개입한다.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 의료팀과 사회복지사가 모여 지원 방법을 논의한다. 병원에 없는 자원은 위기아동 및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때마다 자원을 발굴한다.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전부 제공할 수 없지만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원칙을 지켜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와 정신건강, 심리, 사회복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다학제적인 케어플랜으로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간다.

단순 의료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 아동보호 체계

햇살아이에서 진행된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학습과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아동인데 계속 코를 콧물거리고 헛바닥의 잦은 꺾임과 피곤함을 호소하여 여러 차례 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는다고 의뢰되었다. 햇살아이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있는 엄마를 위해 가

정방문으로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아동의 가정은 아버지가 부양을 회피하여 따로 살고 있었고 최소한의 가족 부양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심각한 방임 상태에 처해 있었다.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수시로 집에 오면 엄마와 아동에게 욕을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때리거나 괴롭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 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아동이 혀 꺾임이 낫지 않고 피로가 누적된 것은 아버지의 학대와 방임, 영양결핍이 원인이었고 아동의 엄마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사회생활도 끊은 채 무기력과 초고도비만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햇살아이는 아동 가정이 겨울 내내 난방 없이 생활, 가정폭력, 부부간 간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즉각 병원 의료팀, 변호사, 지역아동센터, 심리치료센터 솔루션회의를 가졌고 아동 건강 정밀 검사 및 치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계획하였다. 엄마가 강력히 이혼을 원해 법률자문을 받고 이혼소송을 지원하였다. 현재 아동은 햇살아이와 연계된 기업의 도움으로 거주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였고, 경찰서, 시청의 협조로 안전한 곳에서 긴급생계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햇살아이는 아동의 치료와 엄마의 자존감 회복 및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연계하였고 엄마는 심리치료 및 부모양육 교육을 받으면서 구직 활동 중이다.

아동보호체제로 미래 세대의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

햇살아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을 받은 아동은 172명이며 2017년에는 11월까지 50명이 넘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9월 12일 사회복지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햇살아이는 ‘위기아동 통합지원 프로젝트’를 주제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 지원금 없이 구미병원 교직원과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아동과 가정을 돕고 있어 구미병원 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센터 대표인 김태우 구미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아동 대부분은 학대를 받거나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임을 강조한다. “아동보호는 어른과 사회 몫이다. 교육·행정·사법기관과 함께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내 아동을 발굴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햇살아이는 사업을 통해 정서학대의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게끔 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보호체제로 미래 세대의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다빈치 로봇수술기와 테이블 모션테크놀로지

로봇수술기 다빈치Xi, 첨단 수술대와 만나다

로봇팔과 연동해 최상의 각도에서 수술
순천향대 서울병원 테이블 모션 테크놀로지 가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이 첨단 4세대 로봇 수술기인 다빈치 Xi와 로봇팔과 연동하는 테이블 모션 테크놀로지 수술대를 가동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 로봇수술기 중 최신형 모델이며, 특히 테이블모션테크놀로지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가동하는 첨단 장비다.

로봇수술은 원격 콘솔 장치에 앉아 직접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수술할 때처럼 손을 움직이면, 환자의 몸에 삽입되어 있는 8mm 내외의 로봇 팔이 의사의 손 움직임과 똑같이 수술하는 방식이다. 확대된 고해상도 3D HD 입체 영상 장치와 15배 확대한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도 몇 개의 작은 절개만으로 정확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사람 손목보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특수 기구를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고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첨단 수술 방법이다.

대상 수술은 △ 비뇨기과: 전립선암,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신우암 △ 산부인과: 자궁근종, 자궁적출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난소낭종 △ 외과: 위암, 직장암, 대장암, 담낭질환, 담도 및 췌장질환 △ 이비인후과: 갑상선암, 인두암, 후두암 등이다.

특히 전립선, 자궁경부, 직장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암 수술에서 효과가 크고 심장질환과 유선유종 등의 질환에서도 최소절개로 치료가 가능하다. 의사의 손동작을 로봇 팔에 동일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수술이 안전하고, 수술 후 남은 흉터나 외상의 스트레스도 적다.

조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고 출혈과 합병증도 적다. 장기의 빠른 기능 회복으로 퇴원과 일상복귀도 빠르다.

또한 비뇨기 수술에서는 발기능력 보존이 일반 개복 수술보다 탁월하고 배뇨조절 능력의 회복 가능성도 증가한다. 산부인과 분야는 흉터가 적어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더 큰 근종을 제거할 수 있으며, 가임 능력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외과 직장암 수술에서도 배뇨 및 성기능의 빠른 회복을 돕고, 이비인후과는 목 흉터가 없고, 후두 신경손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테이블 모션 테크놀로지는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시스템과 고급 전동식 수술대인 트루 시스템이 융합된 기술이다.

로봇수술기 다빈치Xi 첫수술



수술용 로봇 팔이 환자의 몸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술대가 움직일 수 있고 로봇 수술기가 실시간으로 수술대의 각도와 위치를 파악해 로봇 팔의 위치를 조정해준다.

수술 중 언제든지 전동식 수술대의 위치를 재조정해 수술 부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술 부위의 노출 및 수술 가능 범위를 극대화해 집도의가 가장 이상적인 각도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탁민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다빈치 수술 센터장은 “최신형의 로봇수술기 운영 시스템으로 더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많은 분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병원 만들기 위해 10월 ‘올인’

천안병원은 10월을 ‘환자안전의 달’로 지정하고, 병원 내 환자안전문화 확산과 환자안전시스템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

병원 QPS(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10월 환자안전 강화 활동들은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 ▲SCH-3UP 환자안전 캠페인, ▲환자안전 라운드, ▲환자안전 교직원 교육,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재난훈련 등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이어졌다.

환자안전 인식도 조사는 교직원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2주간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교직원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환자는 설문지를 통한 조사가 진행됐다. 금년은 낙상예방동영상을 제작해 병실TV를 통해 하루에 두 번씩 영상교육을 시행한 만큼 낙상예방 인식도 조사도 함께 실시해 낙상예방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도 곁했다. 천안병원은 조사결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환자안전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정해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SCH-3UP 환자안전 캠페인은 ▲Speak up, ▲Cheer up, ▲Health up 등 3가지 활동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12일간 쉼 없이 이어졌다.

Speak up 활동은 입원환자 대상 안전교육. QPS 교직원들은 전 병실을 순회하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확한 환자 확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환자확인절차와 낙상예방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환자안전 라운드



지역사회 안전 위한 재난대비 모의 훈련



환자 확인 절차

낙상예방 동영상 시청



외래환자와 보호자 대상 CPR교육

안전교육

Cheer up 활동은 교직원 대상 환자안전 인식도 제고 활동. 배트맨과 피터팬 등 캐릭터 복장을 착용한 QPS 교직원들이 모든 진료과와 부서를 돌며 환자안전 활동 응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포춘쿠키를 패러디한 안전쿠키(안전 메시지와 행운권이 들어있다)를 전달해 즐거움과 행운을 선물했다.

Health up 활동은 외래환자와 보호자 대상 CPR교육.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외래 진료관 2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시 방법과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CPR교육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참여해 큰 성황을 이뤘다.

환자안전 라운드는 병원 내 환자안전 위험요인 탐색 및 개선을 위한 활동. 병원 경영진과 QPS 교직원들은 별관1병동, 제2중환자실, NICU, 약제팀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라운드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천안병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교직원 대상 환자안전교육을 병원 송원홀에서 실시했으며, 지역사회 재난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앞 제5주차장에서 재난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이문수 천안병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사회 재난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병원, 지역사회 안전을 선도하는 병원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 작은 희생으로 살린 소중한 생명의 가치

염정원 부천병원 간호사 ‘조혈모세포 기증,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이의 불치병보다 당장 내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를 더 심각한 질병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가 전 세계 최하위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 이러한 현실에 반기를 들고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염정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간호사가 말하는 ‘나눔의 가치’를 조명한다.

소중한 생명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조혈모세포 기증, ‘두려워할 이유 1도 없어’

올해로 입사 18년차를 맞이한 염정원 부천병원 간호사는 지난 5월 한국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백혈병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데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때서야 염 간호사는 15년 전, 친언니와 함께 예배 후 교회 앞에서 헌혈을 마치고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었다.

“마침 그즈음에 반도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백혈병으로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던 때여서 조혈모세포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의 아내인데 한 가정의 구성원일 환자와 그 가족들이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뤄 짐

작할 수 있었기에 바로 기증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다. 물론 실제 기증은 만 55세까지도 가능하다.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적합성항원의 일치 가능성은 부모가 5%, 형제자매가 25% 정도이며 그 외 비혈연 관계는 수천 내지 수만 분의 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도 기증에 동의한 예비 기증자의 범주에서만 대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면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X-ray, 심전도, 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사실 ‘기증’이라고 하면 우선 두렵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다른 장기기증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물론 며칠 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약간의 물리적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작은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수지맞는 장사장소’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향해

작지만 큰 한 걸음, ‘나눔의 가치에 주목하라’

조혈모세포의 세부 기증 과정은 크게 1.기증 3일 전 골수의 조혈모세포를 말초혈로 이동시키기 위한 과립구집락촉진인자 피하주사 주입 - 2.기증 당일 약 6시간에 걸쳐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의 두 단계로 이뤄진다. 과립구집락촉진인자 주사 후 3일 간은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 부작용이 아닌 세포증식약물 투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특히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해당 세포의 다양한 효능에 기인한다. 조혈모세포는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각종 혈액종양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만 확보되면 무려 90% 이상의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다. 아주 작은 희생으로 다른 이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조혈모세포 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 며칠 동안의 작은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실 부천병원 의료진 중 제법 많은 수가 염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각종 기증을 신청한 상태다. 작게는 염 간호사와 같은 조혈모세포 기증부터 크게는 장기기증까지 아우른다. 염 간호사 또한 이미 사후 각막기증을



염정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간호사가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있다.

서약한 상태다.

“솔직히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부끄러울 만큼 의료인으로서 어찌면 매우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외에도 수많은 동료 의료진분들이 장기기증을 신청했습니다. 결코 저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병원에서 가장 먼저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세우고 이에 참여하길 개인적으로나마 바라봅니다.”

국내 연간 장기 기증자 수는 최근 5년간 2000명 선에서 답보상태다. 한 해 장기 이식 대기자수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기기증이 부족한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돌이킬 수 없다’와 같은 잘못된 상식과 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잘못된 상식과는 달리 증 서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뇌사자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세상을 바꾼 역사적인 사건들은 아주 작은 계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혈모세포를 비롯한 장기기증에 대한 나의 작은 결심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한 인간의 삶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한 걸음. 염 간호사가 보여준 타인을 위한 배려에서 나눔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 ‘반드시 승리할 것’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뇌졸중센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급성 뇌졸중 진료 시행



흔히 ‘중풍’이라고 일컫는 뇌졸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 무엇보다 뇌졸중은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탓에 전문병원으로의 빠른 이송은 필수적이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중부권 최고의 뇌졸중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으로 지난 10년 간 수많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 천안병원 뇌졸중센터의 하루를 재구성한다.

뇌혈관 수술 1500례 달성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뇌졸중 전문 의료기관 ‘인정’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관련 진료에 필요한 6개 분과 전문의가 모두 참여한 중부권 최고의 뇌졸중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다. 10년 전 윤석만 신경외과 교수(현 뇌졸중센터장)와 오형근 신경과 교수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이후 많은 동료 전문의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현재 윤석만, 오형근 교수를 비롯해 ▲오재상 신경외과 교수 ▲오세원 영상의학과 교수 ▲김수아 재활의학과 교수 ▲문형준 응급의학과 교수 ▲유익동 핵의학과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뇌졸중은 초기 응급대응부터 진료 및 시술/수술, 재활치료까지 3박자가 모두 필요한 질환으로 각 단계별 전문의가 모두 필요하다. 뇌졸중의 진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급의료센터의 1차 검진-신경과·신경외과의 진료 및 시술/수술-영상의학과·핵의학과의 세부 검사-재활의학과·재활치료」로 진행된다. 즉, 각 진료단계마다 그에 맞는 전문의가 배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분과 전문의가 참여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뇌졸중센터 소속 전문의가 항상 상주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늘 한결같이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천안병원 뇌졸중센터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뇌졸중은 다양한 분과의 협진이 필수적인 질환이다.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이러한 뇌졸중의 특징을 반영해 전문의 간 유기적인 협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듯 뇌졸중 특화 의료시스템을 운영 중인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지금까지 ▲비파열성 및 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동맥 내 혈전 용해 및 제거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동정맥기형, 동정맥루 및 중양 색전술 ▲혈관성형술 등 뇌혈관 내 수술 등 1500례가 넘는 뇌혈관 관련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왔다. 아울러 정맥 내 혈전용해술 시행율 100%, 신경과·신경외과 당일 협진율 100%를 기록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뇌졸중 전문 의료기관임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급성뇌졸중 환자만을 위한 응급의료센터 전용 병상과 뇌졸중 전문 치료실(Stroke Unit), 뇌신경계 중환자 전문 치료실(Neurological Critical Care Unit)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환자 진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승적인 뇌졸중센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안병원 뇌혈관치료연구회 활동을 통해 뇌졸중과 관련해서 더 나은 진단과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 역시 뇌졸중센터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분 1초마다 환자의 생사가 교차하는 시간과의 싸움에 도전장을 내민 천안병원 뇌졸중센터 7인의 출사표가 사뭇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AM 07:30 정기적으로 열리는 천안병원 뇌졸중센터의 정기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현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를 처음 기획한 윤석만 신경외과 교수와 오형근 신경과 교수를 비롯해 총 7명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정기 콘퍼런스를 통해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뇌졸중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침을 논의하는 한편 보다 완성도 높은 전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윤석만
신경외과 교수
(뇌졸중센터장)

‘최고의 의료진에 걸맞은 최고의 시설 갖출 것’

단언컨대, 천안병원 뇌졸중센터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뇌졸중 특화 의료시스템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다수 분과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뇌졸중과의 시간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더없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뇌졸중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전문의들은 현 뇌졸중센터의 초석인 뇌혈관치료연구회를 자발적으로 발족·운영할 정도로 이에 대한 열정이 사뭇 남다릅니다. 다만 물리적인 한계 탓에 현재 뇌졸중센터의 시설 및 장비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기에 조만간 착공하는 새 병원 완공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뇌졸중은 그 어떤 질환보다 신속한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뇌졸중 특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 없는 발전과 혁신을 시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형근
신경과 교수

‘환자의 일상 지키는 삶의 안전망 역할에 충실할 것’

대표적인 급성질환으로 손꼽히는 뇌졸중은 우리 일상에서 제법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입니다. 뇌졸중 발생 시 반드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의료상식이지만, 정작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뇌졸중은 당장의 상태보다 후유증 발생이 더욱 심각한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만 병원을 찾아와 적절한 진료를 받는다면 뇌졸중 후유증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졸중센터를 운영하며 느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로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호전돼 결국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나이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삶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문형준
응급의학과 교수

‘뇌졸중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라!’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6시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6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후유증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뇌졸중 전문 의료기관으로 찾아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들렀다가 오는 일이 많은 탓입니다. 천안병원 뇌졸중센터는 이러한 현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환자가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천안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전문 확보와 특화 의료시스템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의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학과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에 대한 초기 치료로 인해 상태가 천차만별로 나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뇌졸중 전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지역 환자들이 더욱 믿고 찾는 뇌졸중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게 늘 한결 같은 초심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김수아
재활의학과교수

‘환자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

뇌졸중은 대부분 필연적으로 장애라는 후유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재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안병원 뇌졸중센터에서 초기 집중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전의 몸 상태로 되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신체적 불편함보다 이로 인해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종의 자존감 하락에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와 역할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재활의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뇌졸중 환자에 대한 협진 시 재활치료사들이 참여해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해 가장 적절한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자에게 평범한 삶을 되돌려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M 8:20 문형준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급한 연락이 날아들었다. 출근 준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 뇌졸중의 경우 증상 발생 후 6시간 내에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인 셈이다. 보다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 문 교수는 응급의료센터 정문에서 환자를 직접 맞이해 즉각적으로 1차 검진을 시행했다. 문 교수가 침상으로 옮겨진 환자의 양 팔과 다리를 교차로 들어보고 안면을 자극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해당 환자는 뇌졸중으로 판단됨에 따라 곧장 관련 분과와의 협진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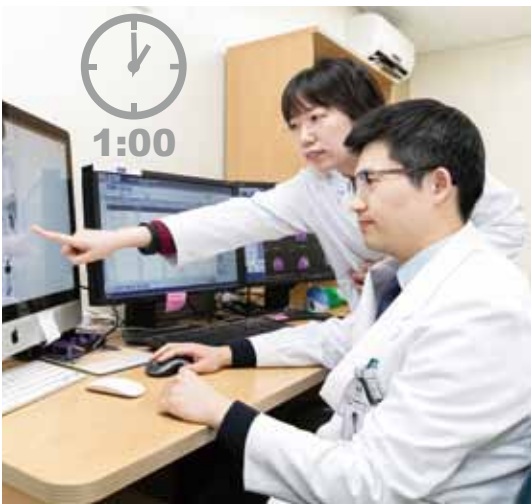
AM 9:00 오형근 신경과 교수가 천안병원 뇌졸중센터의 필수시설인 ‘뇌졸중 전문 치료실(Stroke Unit)’을 방문했다. 오 교수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80세 남성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한편 향후 협진을 진행할 뇌졸중센터 구성 의료진과 즉석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후 오 교수는 보호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방침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AM 9:40 윤석만 신경외과 교수가 76세 남성 환자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고 있다. MRI 검사에서 뇌혈관 파리(미파열 뇌동맥류)가 발견된 것. 해당 시술은 뇌혈관 파리의 파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뇌혈관 파리는 뇌 내 혈관이 부풀어 오른 것을 일컫는데, 이를 방지해 파열될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로 이어지게 된다. 뇌출혈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급성질환으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은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AM 10:30 오세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뇌졸중이 의심되는 60대 남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를 찍고 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오 교수에게 이송된다. 신경영상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오 교수는 뇌졸중 환자에 특화된 영상의학 전문의로 손꼽힌다.



PM 1:00 지난해 새롭게 뇌졸중센터에 합류한 유익동 핵의학 과 교수가 60대 뇌졸중 여성 환자에게 뇌혈류스펙트(단일광자단층촬영)를 시행한 후 핵의학과장인 이상미 교수와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뇌혈관에 흐르는 혈류의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환자의 예후와 향후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PM 3:00 김수아 재활의학과 교수가 문현미 재활치료사와 함께 76세 남성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뇌졸중의 진료는 크게 「진료·시술/수술·재활치료」의 세 가지 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의 경우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 교수는 각 뇌졸중 환자에게 맞는 개별 재활프로그램 및 치료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 번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나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린다

원종호 중앙혈액내과 교수

‘기증 조혈모세포 확보, 혈액암 완치 자신해’



드라마 속 단골소재로 사용되는 백혈병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여겨져 온 질병 중 하나다. 물론 의학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이제는 높은 확률로 완치가 가능해졌지만,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혈모세포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조혈모세포이식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종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에게 혈액 질환의 허와 실을 확인한다.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취임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 혁신 주도 할 것’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원종호 서울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는 지난 9월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이하 조혈모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해 관련 분야의 성장과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조혈모학회가 학술대회를 국제학회로 발전시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성큼 넓어진 보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원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분야의 저변 확대와 각종 혈액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앙혈액내과에서 원종호 교수는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그 외 여러 혈액암과 혈액 질환 등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혈액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진료한다. 특히 항암치료를 비롯해 암의 전반적인 치료를 총괄함으로써 암 환자에게 가장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원 교수는 “암 환자의 치료 과정을 총괄하는 것이 중앙혈액내과의 주 업무”라며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전달하기 위해 다학제 진료와 협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혈액종양내과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서울과 부천병원에서 500여건 이상의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연구발표와 다양한 학회활동 등 굵직한 업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87년 서울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조혈모세포 이식에 성공했다. 원 교수는 이후 1991년 서울병원에 입사해 20년 이상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주도해오며 서울병원을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병원으로 발돋움시켰다. 서울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는 올해 초 새롭게 확대·개편돼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행위가 가능토록 한 것 또한 원 교수의 역할이 컸다.

원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조혈모세포이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분야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치를 가장 높은 질환 조혈모세포 확보 ‘절실’

임상경험이 풍부한 원 교수가 이사장으로 역임한 후 조혈모학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확립 및 기부 문화 확산 등이다. 혈액 질환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인자’, 즉 조혈모세포 분야의 전반적인 혁신을 주요 맥락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혈모학회는 먼저 ‘조혈모세포 이식 등록 사이트’를 새롭게 재정비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혈액암과 일부 혈액질환은 조혈모세포만 확보된다면 높은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며 “조혈모



원종호 교수가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세포의 기부 문화 확산으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백혈병을 비롯한 대부분의 혈액 질환들은 원 교수의 말마따나 환자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확보 시 매우 높은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혈모세포인 것이다. 조혈모학회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원 교수의 지난 행보와 향후 계획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에 모이는 이유다.

원 교수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다른 장기 기증과는 달리 기증자의 신체를 훼손하는 과정이 없다”라며 “물론 조혈 성장인자 주사 후 3~4일 정도 가벼운 몸살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자는 한해 평균 300~400여 명 수준이다. 반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기증자의 수십 배에 달한다. 물론 수만 분의 일에 불과한 낮은 조혈모세포 조직적합성항원 일치 확률도 낮은 기증 건수의 이유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기증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가장 크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홍삼성분 ‘진세노사이드 Rg3’ C형간염 바이러스 강력한 억제 효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장재영 교수팀 최초 밝혀



장재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장재영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공동연구자 한국화학연구원 김성준 박사)이 홍삼 성분의 하나인 진세노사이드 Rg3(G-Rg3)가 C형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밝혀 학계에 보고했다.

나이가 진세노사이드 Rg3는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세포의 소기관) 독성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경구용(먹는) C형간염 치료제의 부작용인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재영 교수팀은 C형간염 바이러스(HCV)가 지속성 바이러스 감염과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를 초래하고, C형간염치료제(DAA)로 쓰이는 경구용 신약제 역시 미토콘드리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독성이 관찰되는데, 진세노사이드에 의해 생리학 및 선천성 면역체계의 지지를 받아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로 변화되는 것을 참조하여 C형간염 치료제로 유발되는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변화와 진세노사이드의 역할을 실험했다.

먼저 강력한 C형간염 세포배양 시스템을 이용해 진세노사이드에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는지를 스크리닝 했다. 진세노사이드가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이나,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의 항바이러스 효과와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 변화,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의 분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실험 결과 화합물의 하나인 진세노사이드 Rg3 만이 현저하고 강력하게 C형간염 바이러스 억제력을 보였다. 추가적인 기전연구에서는 C형간염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진세노사이드 Rg3로 처리하면 세포질 p21,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1(CDK-1)와 다이나민 관련 단백질 1(Drp-1)의 Ser616 인산화로 이어지는 신호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켜주고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

와 진세노사이드 Rg3가 동시에 투여된 경우 경구용 C형간염 치료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손상까지 회복되었다.

장재영 교수는 “홍삼은 과다 복용할 경우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성분 중 하나인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은 C형간염바이러스의 활동을 강력히 억제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연구를 잘 진행하면 현재 사용 중인 C형간염 치료제의 부작용도 줄이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재영 교수팀은 연구 논문을 간 분야의 세계최고 권위 학술지인 해파토롤로지(HEPATOLOGY) 2017년 9월호에 게재했다. 또한 C형간염에 대한 Rg3 치료제와 Rg3의 투여 방법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진세노사이드

Rg3

진세노사이드

Rg3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복부 대동맥류 치료 신 의료기술’ 도입



허 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흉부외과 교수

개복수술이나 스텐트 시술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에게 희소식
최근 경피적 대동맥류 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다층 유량 모듈레이터, 대동맥류 내 혈액의 흐름을 기능적으로 복원시켜 주는 치료법)’이 보건복지부 신 의료기술로 고시됐다. 이 의료기술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중,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이 불가능한 수술 고위험군에게 적용이 가능해 해당 질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산하 신 의료기술 평가 사업본부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경피적 대동맥류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이 2017년 제7차 보건복지부 신 의

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안정성과 치료효과가 있는 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9호, 2017.09.01)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해져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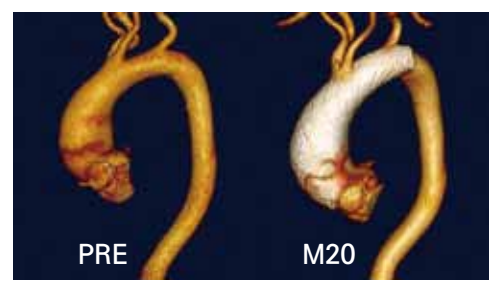
대동맥류는 대동맥의 약한 부위가 혈액이 흐르는 힘을 견디지 못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이다. 이러한 상태를 치료하지 않으면 대동맥이 파열되어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 대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복수술을 통한 동맥류절제술,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에 인정받은 신 의료기술은 흉부나 복부 대동

맥류 환자 중,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Multilayer Flow Modulator를 삽입하여 대동맥류 내에 혈전 생성을 유도, 대동맥류의 파열을 막고 분지혈관의 개방성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 의료기술 평가위원회는 경피적 대동맥류 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에 대하여 총 15편(증례연구 6편, 증례보고 9편)의 관련 국외 연구를 바탕으로 질 평가를 시행하고 안정성을 검증했다. 또한, 본 기술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6편의 증례연구에 근거하여 동맥류 지표(직경, 부피, 혈전 생성, 분지혈관 개방성), 시술 성공률, 재 시술률을 평가했다.

그 결과, 경피적 대동맥류 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동맥류



MFM 시술 후, 상행대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은 호전되고, 대동맥궁 혈관들은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CT 영상(오른쪽)

직경과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분지혈관 개방성이 96.6% 이상의 높은 비율로 유지됐다. 또한, 기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의 평균 3.3년 생존율이 44.6%(Greenhalgh et al., 2005)인데 비해 해당 기술은 3년 생존율이 69.6%로 보고되어, 분지혈관으로 인해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흉부외과 허군 교수는 “경피적 대동맥류 내 Multilayer Flow Modulator 삽입술이 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기존의 혈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받기 어려웠던 고위험군 대동맥류 국내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술 후 큰 흉터도 없고 외과적 수술과 달리 회복 속도도 빨라, 그동안 분지혈관 등을 이유로 수술이 어려웠던 환자들과 보호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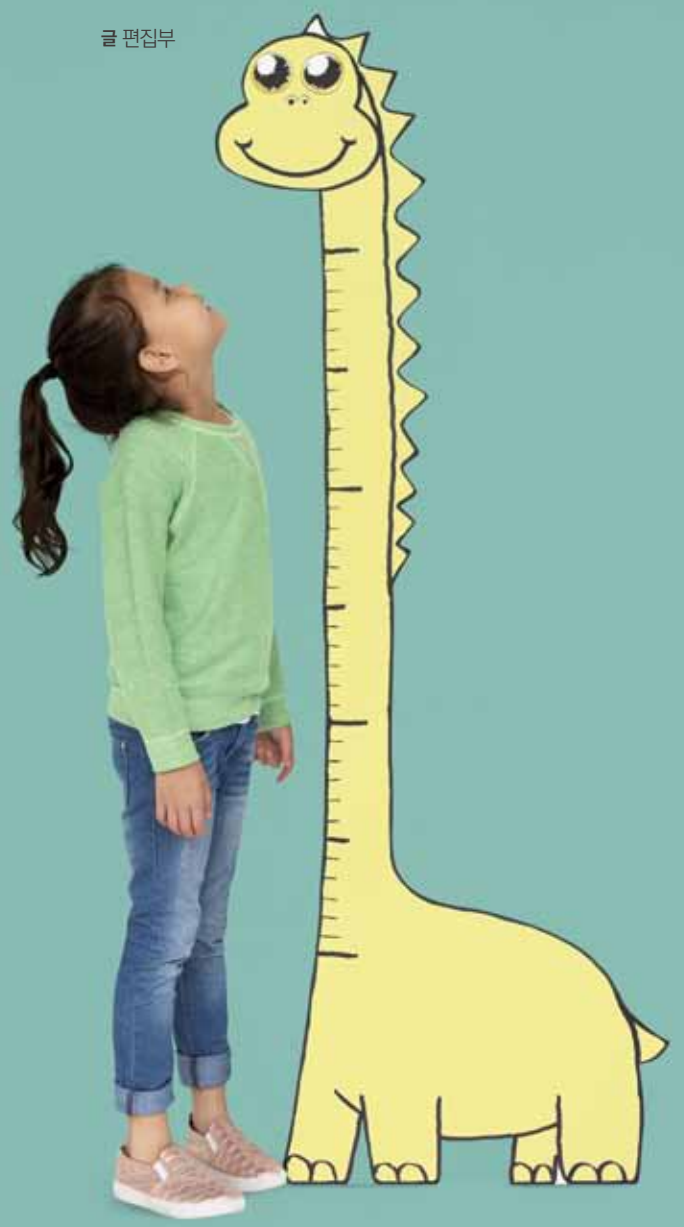
다양한 MFM 제품군 : 흉복부 대동맥류 및 말초혈관 협착에도 사용할 수 있다.



MFM 시술 후, 흉복부 대동맥류가 호전되고, 분지 혈관들은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CT 영상(오른쪽)

소아 저신장증의 성장호르몬 치료

호르몬 결핍 저신장증 치료 시 효과 뚜렷
어린 나이에 시작해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해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출생 후 만 2세가 될 때까지 제1의 급성장기가 있고,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 연간 4~6cm정도 자란다. 사춘기에는 제2의 급성장기가 찾아오고, 사춘기 후반부터 성장속도가 감소하다가 성장이 멈춘다.

의학적으로 정의하는 저신장은 같은 나이 및 성별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키가 3백분위수 미만인 경우다. 현재 키가 저신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학동기의 아동이 연간 4cm 이하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또래보다 10c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성장장애를 고려할 수 있다.

년 4cm이하 성장, 또래보다 10cm이상 작다면 고려

소아 저신장증의 주요 원인은 가족성 저신장증과 체질성 성장 지연이다. 가족성 저신장

증은 현재 키는 작지만 성장속도는 정상이고, 가족들이 대부분 키가 작은 경우다. 골연령은 정상 범위고, 사춘기는 또래와 비슷하게 시작한다.

체질성 성장 지연은 또래보다 늦게 자라는 경향을 보인다. 성장속도는 정상이지만 골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사춘기의 발현이 또래보다 늦은 경우다. 따라서 사춘기에는 또래보다 키가 작지만, 성인기에는 정상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저신장증의 원인으로 터너증후군, 다운증후군, 연골 무형성증, 골이형성증, 영양결핍,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이 있다.

병원에 내원하면 먼저 어린이의 키가 같은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몇 백분위수에 속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부모의 키·성장 패턴, 다른 가족의 성장 패턴과 비교해 6개월 혹은 1년간의 성장속도를 바탕으로 정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의심되면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를 시행한다.

소아내분비 전문의 처방으로 일찍 시작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의한 저신장증인 경우 최종 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면 더욱 좋다. 성장호르몬은 키를 크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근력, 대사기능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완전한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다면 소량의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었을 때 성인형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소아내분비

성장 이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 ☐ 같은 나이, 성별의 아이와 비교하여 키가 3백 분 위수 이하이다.
- ☐ 출생 시 키 또는 체중이 3백 분 위수 미만이었다.
- ☐ 지난 1년 동안 키가 4cm를 자라지 못하였다.
(영유아 검진이나, 학교에서 측정한 기록을 이용하여 비교하면 도움이 됩니다.)
- ☐ 여자 아이의 경우, 만 8세 이전에 가슴 발달 혹은 음모 발달이 있다.
- ☐ 남자 아이의 경우, 만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음모 발달이 있다.
- ☐ 만성 신질환, 심장 질환, 장질환이 있거나 종양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다.
- ☐ 시신경의 이상이나, 구개열 또는 구순열 등 얼굴의 중앙부에 이상이 있었다.

강은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문가가 있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시행하고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관찰도 필요하다.

안전한 약이지만 부작용 요주의 관찰 필요

성장호르몬은 현재 30년 이상 치료에 사용되면서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육통, 관절통,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피부 발진 등의 과민반응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성장호르몬 투약을 시작한 초기에 뇌압의 상승으로 두통, 구토 등을 보일 수 있지만, 투약을 중단하면 증상은 사라진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척추 측만증의 악화, 대퇴골 탈구, 갑상선호르몬에 가벼운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종양 치료를 받았거나 유전성 종양의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잘 자라려면 균형 잡힌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과도한 열량 섭취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하루 30분 이상의 활발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적절한 야외활동으로 일조량을 충분히게 유지하면 성장에 중요한 비타민D 부족을 피할 수 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장장애가 의심되면 즉시 소아내분비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피나는 환자도 색전술을 해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20여 년 전부터 인터벤션시술이라고 불리는 중재적혈관시술을 지역 내 최초로 시행하여 많은 환자들의 응급질환 치료 및 건강향상에 힘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벤션 시술은 비혈관계 시술과 혈관계 시술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비혈관계 시술은 우리 몸 여러 곳의 농양, 체액저류(홍수, 복수) 배액관삽입술, 간이나 신장농양, 폐농양 등의 배액관삽입술, 폐 기능 등이 좋지 않거나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곤

란한 급성담낭염, 담도계 악성종양으로 인한 황달 등의 배액관 삽입술, 요료폐색 등으로 인한 신장으로 배액술 등이 있다.

혈관계 시술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동맥, 정맥 등의 질환에 대해 인터벤션시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위장관 출혈, 객혈(hemoptysis), 간암의



양승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실장



동맥 색전술 시행중인 영상의학과 양승부 교수

화학색전술 등의 질환에 대한 경도관동맥색전술(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이 있으며 또한 동맥경맥화증으로 인한 동맥 협착으로 보행 장애, 발 괴사의 경우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풍선확장술(balloon angioplasty), 금속성 물질을 삽입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 등이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는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는 인터벤션시술 중에서 내과적 혹은 이비인후과적 처치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최초로 코피(비출혈)의 지혈에

경도관동맥색전술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비출혈의 경도관 색전술은 비강 내 깊게 위치하는 출혈동맥에 대하여 혈관 내로 2-3mm 직경의 가느다란 관(catheter)을 삽입 후 출혈되는 목적혈관을 polyvinil alcohol 입자나 젤폼(gelfoam) 등의 색전물질을 이용해 혈관을 막는 시술이다.

코피가 나는 혈관들은 뇌와 얼굴 부위로 가는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의 한 분지(branch) 중 주로 코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지만 근처의 대뇌동맥과(cerebral artery) 교통(communication)이 있어 색전술 시 이러한 뇌로의 색전물질 유입을 신경 써야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대뇌동맥에서 안동맥으로 제대로 기시하는지 확인해야 시술 후 시력상실 등의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어 시술 시 뇌로 가는 혈관들과의 교통에 특히 신경 쓰고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코 동맥(sphenopalatine artery)의 색전술은 내과적 혹은 이비인후과적 처치에도 지혈되지 않는 후방비출혈, 안면부외상후 발생하는 비출혈, 또한 비강 내에 발생하는 섬유성혈관종(angiofibroma)의 수술 시 출혈감소를 위한 수술전 동맥 색전술 등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러한 인터벤션 시술은 우리 몸의 혈관계 및 비혈관계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용되며 지속적으로 적응 질환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비만, 전립성비대증, 오십견(frozen shoulder) 등의 치료에도 시술이 확대되고 있다. 



글 황규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듣지 못하는 답답함, ‘보청기, 인공와우, 임플란트’로 해결

난청 환자, 상황에 따라 치료법 다양

난청은 환자의 청력에 따라 보청기나 인공와우이식, 중이임플란트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최근 이어폰 사용이 늘고, 각종 소음이나 사고로 인해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황규린 순천향대서울병원 난청클리닉 교수를 통해 들어봤다.

어떤 원인이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것이 보청기다. 특별한 시술이 필요 없고 병원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하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귀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진단 없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수술치료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놓치거나 개인의 상태에 맞는 효과적인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귀 상태에 대한 면밀한 진찰과 정확한 청력검사는 만족스러운 보청기 사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국가에서도 청력장애에 대한 보청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근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청기는 환자의 귀에 장착해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기구이다. 소리를 받는 마이크로폰과 소리를 증폭시키는 증폭기,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 소리를 조율해주는 디지털 회로, 증폭되고 조율된 소리를 내보내는 수화기(receiver)로 구성되어 있다. 보청

기는 환자의 청력 상태에 따라 각 주파수의 소리를 개별적으로 조율한다.

가격은 200~300만 원대로 다양하며 청각 장애인에 보장구 지원금으로 130만 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로도 난청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중이임플란트나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중이임플란트가 효과적이다. 귀 안의 이소골이라 불리는 작은 뼈에 임플란트를 이식해 외부에서 전달하는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를 더 잘 듣게 도와주고 단어와 문장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보청기에 비해 어음 분별력이 월등히 좋고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인공와우 이식은 달팽이관(와우)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유용하다.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해 소리를 느끼게 하는 원리다.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해 청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고 뇌의 청각중추가 이를 다시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와 다르게 전기신호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오므로 일반적인 소리와는 음질이 다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소리를 듣는 원리는 공기의 진동(음파)이 귀의 이소골을 거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들어온 소리를 신경이 인지할 수 있는 신경신호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달팽이관 손상으로 청각세포 기능이 없어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경우 달팽이관의 역할을 인공와우이식 장치가 대신 해주는 것이다.

양쪽 귀 모두 고도 난청인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이 가능하다. 한쪽이 난청일 경우엔 보험급여지원이 안 되지만, 수술 후 청력회복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

보청기나 중이임플란트, 인공와우 모두 사후관리와 재건이 중요하다. 수술이 절반이라면 재활과 연습도 절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히 인공와우는 전자음이나 기계음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읽기 말하고 대화하기 등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글 신마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부쩍 쌀쌀해진 날씨 영유아 건강 위협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든다. 매년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가 유행하는데 특히 11~1월 사이 절정을 이루며, 겨울철 영유아 하부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성인이나 큰 아이는 가벼운 상기도 감염 양상을 보이지만, 영아나 어린 소아는 모세기관지염 또는 폐렴이 발생한다. 특히 6개월 이하 영아는 증상이 심해 모세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3개월 미만 에게서는 무호흡으로 인해 갑작스런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콧물, 발열과 가벼운 기침 등의 감기 증상으로 시작하는데, 2~3일 지나면서 점차 기침이 심해지고 쉼쉼거리며 호흡하는 증상을 보인다. 더 심해지면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아이가 보채고 잘 먹지 않으며 심해지면 잠도 잘 못 자게 된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잠복기가 3~5일로 짧아 집단생활 시 빠르게 전파된다. 감염된 경우 보통 약 1~2주 동안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감염 후 1~2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바이러스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걸리는 경우도 흔하지만, 대부분 처음보다 증상이 가볍다.

치료는 기침이 심하고 호흡곤란 등으로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수액 치료와 호흡기 치료, 산소 투여 등의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기침과 쉼쉼거리는 숨소리를 보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증상 정도에 따라 약물을 투약하거나 입원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기침이 심하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잠을 잘 못 자며 보채는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상이므로 바로 병원 외래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기침이 심한 상태에서는 수유 중에 사래가 걸리거나 기침 시 구토로 인해 우유가 폐로 흡인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머리와 상체를 30~40도 각도로 올려주고 각별히 주의하면서 수유해야 한다.

성인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옮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직접 또는 손을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만성 폐질환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영유아와 조산아 등의 고위험군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수동면역 주사가 있으나 건강한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글 김수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암 환자 삶의 질 높이는 ‘암 재활치료’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암에 대한 인식도 불치병에서 만성질환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가하고, 암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중요해지고 있다. 암 치료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과거에 비해 암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켜 신체적 기능을 보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암 재활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적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다. 암 치료 후, 영구적인 장애가 남더라도 정상인의 삶에 근접하도록 장애 정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재활의학과에서 시행 중인 유방암 환자의 림프부종 재활, 폐암 환자의 호흡 재활, 이 외에도 암환자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방 절제술 및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팔의 운동 제한, 수술 부위 유착, 통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 전 미리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교육 및 시행하고, 유착이 발생한 이후에는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운동, 주사, 약물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폐암 또는 머리카락 주변에 암이 발생해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목과 어깨에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고 목 부위에도 심한 운동 제한이 동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적극적인 예방운동이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 섬유화(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를 막기 위한 재활운동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폐 절제술 후 발생하는 호흡기능 부전을 위해 적극적인 호흡재활도 중요한 치료 중 하나다.

유방암이나 지궁암 등의 경우 림프절 전이로 인한 림프절 제술 시행 시 림프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수술 부위와 정상 부위의 둘레를 측정해 림프부종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피부 관리 교육 및 림프수마사지와 함께 부종 상태에 따라 압박붕대 혹은 압박스타킹을 통한 재활치료를 시행해 증상을 완화시켜야 한다.

뇌종양이나 전이성 암으로 인해 신경계가 손상되면 상지 및 하지의 근력 저하, 언어 및 인지장애,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운동치료, 작업치료를 통한 이동 및 보행, 일상생활동작훈련, 언어치료, 인지치료, 연하치료 등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암은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초기에 최대한 빨리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초기에 개입해야 한다. 기능장애 등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지고,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삶의 질도 힘든 간병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 기능저하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암 재활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 [Sci](#)



글 황성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말이 늦는 아이, 어린이 언어장애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수년 이내에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언어 수용 혹은 언어 지각은 더 쉽게 발달하여 생후 수개월 내에 획득할 수 있다. 첫 수년 동안 뇌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언어 발달도 현저하게 증가하여 생후 6-8개월에 용알이를 하고 12개월에 하나의 단어를 말하고 2세경에 두 단어를 말한다. 대개 걸음마를 하는 시기인 2세경에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되면서 언어 구사도 동반되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신경계의 폭넓은 신경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성, 인지 기능,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기능 등을 통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어린이 언어 장애와 관련하여 선천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그 외에 다른 장애와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언어장애 종류는 대표적으로 ‘발달성 언어장애’ (혹은 의사소통장애)로 크게 표현성 언어장애와 혼합 언어장애 (수용성과 표현성)로 구분되고, 언어 능력과 관련되어 청력, 인지, 지능 혹은 뇌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관련 질환들로는 청각장애, 지능저하, 자폐증, 뇌성마비나 뇌전증 등의 뇌손상들이 있다. 이러한 기저 손상 없이 언어발달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순언어장애’라고 한다. 그 외 언어장애로는 입과 코의 조음 기관의 이상으로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조음장애’, 성대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음성장애’, 말더듬 같은 ‘유창성 장애’가 있다.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들의 말 늦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생후 2세까지는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내원한다. 일반적으로 만 2세까지 단어 구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만 3세에도 두 단어를 이용한 문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언어 평가를 권하지만 최근에는 18개월에도 단어를 시작하지 않거나 24개월에도 두 단어 연결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언어평가와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선천적 기형이나 복합장애 등 언어 장애 위험요인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언어 평가와 중재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언어발달 치료는 언어발달 평가 상 현저하게 지체되었거나 학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하고, 어휘력이나 이해 능력이 증가되는 3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언어장애의 예후인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과 언어능력이고, 그 외에 가족력이나 언어 환경도 작용할 수 있다. 지능검사에서 동작지수가 정상이고, 수용언어가 정상이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면 추후에 정상적으로 언어발달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 3세와 4세경에 단순언어장애로 진단된다면 각각 30%, 40%정도는 8세 이후까지 언어지연이 남아 있어 학습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에게서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및 불안장애 등의 행동문제가 보일 수 있어 장기적인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 [Sci](#)





글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바이오헬스부 기자



인공지능 시대, 환자가 찾는 병원이 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각종 서비스를 접목하는 시도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 도입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가 의료분야다. 인천 길병원을 시작으로 국내 여섯 개 대학병원이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비만 네트워크 365mc 등은 MS와 함께 자체 인공지능 개발에 나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개 국내 의료기관이 인공지능을 의료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용화 단계에 가장 근접한 의료용 인공지능은 진단 및 질환 예측 분야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앞다퉈 도입한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60만 건의 진단서, 200만 쪽의 전문서적, 150만 명의 환자 기록을 학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계획을 제시한다. 국내 환자 데이터가 많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환경이 달라 의사가 판단한 치료계획과 왓슨이 제시하는 계획 간 일치도는 높지 않다. 하지만 왓슨에 대한 환자들의 믿음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한다는 ‘인공지능 칼리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는 이 프로젝트에 1조 8000억 원을 지원했다. 구글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 유방암 등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뷰노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등을 분석해 최대 24시간 전에 심장 정지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폐 컴퓨터단층촬영(CT), 뼈 엑스레이 등을 통해 질환 유무를 확인하고 골 연령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병원 진단이 통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점만 보면 병원의 미래는 밝지 않다. 수많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 앞에 인간의 뇌는 한 없이 작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사에 대한 믿음이 높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안타깝게도 상당수 환자가 의사보다 기술에 더욱 믿음을 주는 세상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진료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의료진이 “인터넷에 질환 정보를 의존하는 것이 요즘 환자들의 또 다른 병”이라고 말한다. 내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인공지능이 로봇 팔을 조종하는 시대도 다가오고 있다. 명의의 머릿속에 담긴 수많은 수술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배우는 날은 코앞에 왔다. 하지만 낙심하기는 이르다. 의료는 서

비스 산업이기 때문이다. ‘진단과 수술 잘하는 병원’을 넘어 ‘환자가 찾는 병원’이 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가진 강점을 찾아야 한다. 감성과 소통, 환자를 향한 진심이다.

국내 모든 병원이 벤치마킹 한다는 메이요클리닉 이야기다. 한 여성트럭 운전사가 운전 중 심한 통증을 느꼈다. 길에 트럭을 주차하고 메이요클리닉 세인트메리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는 “길에 주차한 차안에 개가 있어 입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이 나섰다. 대형 트럭 면허를 가진 직원은 차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주차했다. 차안에 있던 개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봤다. ‘환자가 우선(Patient comes first)’이라는 이 병원의 모토는 환자에게 감동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말만 해서는 만들 수 없는 가치를 만들었다.

‘Always say YES’를 운영철학으로 내건 카메다종합병원도 많이 인용된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어려운 요구라면 최대한 심사숙고해 대안을 만든다. 병실에서 치즈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환자가 있으면 가까운 치즈케이크 가게 정보, 그곳까지 가는 방법 등을 환자에게 알려준다.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감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이미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가 “이제 나가면 안 돼요?”라고 물을 때까지 설명을 한다. 환자를 고객이라 부르며 아침마다 전 직원이 일렬로 줄을 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병원도 있다. 정성껏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하면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내고 진료실 문을 나서는 환자를 의사가 배웅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서있기 힘든 환자가 앓을 의자를 두고 퇴원하는 환자에게 손 편지를 써주기도 한다.

직원 복지에 공을 들이는 병원도 늘고 있다. 직원은 또다른 고객이기 때문이다. “해외 병원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호텔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다가 결국 구글 페이스북의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한 병원장은 이야기했다.

“지금 오는 환자만 잘 보기에다 시간이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진료수가 낮아 서비스에 공을 들일 수 없다”는 반론도 이해한다. 하지만 불만만 토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인공지능 시대 생존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生)일 때보다 익혀야 영양소가 풍부해지는 채소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주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10%밖에 흡수할 수 없지만, 익히 먹으면 흡수량을 6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당근을 생것, 찌기, 끓이기 등의 조리법을 통해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끓인 것에 카로티노이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근(100g)을 생으로 먹을 땐 7300 μ g의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할 수 있지만 익히면 8300 μ g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성분이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하는데, 생당근으로 먹을 때는 4100IU 정도 섭취하는 데 비해 익혀 먹을 때의 비타민A는 4600IU 정도로 증가한다. 더욱이 소화흡수율이 낮아 생으로 먹으면 약 10%만 흡수되고, 익히거나 식용유 등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50~70%로 높아진다.



브로콜리는 물을 붓지 않고 그대로 찌 먹는 것이 좋다. 브로콜리는 암을 예방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살짝 데치면 이 성분이 농축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연구팀에서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작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의 보존력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브로콜리를 5분간 찌서 먹는 것이 미로시나아제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농업·식품화학지(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실린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경우 찌는 조리법은 항암작용이 있는 식물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의 농도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근에는 녹말로 보호돼 있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돼 있어 열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칠 때도 문제가 없다. 강장 작용을 하는 연근의 '뮤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60초 정도만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다.

채소는 종류에 따라 데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엽채류(잎을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 과채류(과실과 씨를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 콩류 등은 조직이 넓어 열이 쉽게 빨리 통하기 때문에 물이 팔팔 끓었을 때 데치거나 삶는 것이 좋다. 감자, 고구마 등은 조직이 단단해서 끓는 물에 넣으면 내부에 열이 통하기 전에 표면이 물러질 수 있어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 익히는 것이 좋다. 

생으로 먹는 것 보다 데쳤을 때 영양소가 풍부해지는 채소들이 있다.
대표적인 채소는 브로콜리, 당근, 연근이다.
왜 이들 채소는 데쳐 먹을 때 영양소가 풍부해질까?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길 ‘가야산 소리길’

올해의 걷기 테마로 선정된 ‘세계문화 유산길’ 중 다섯 번째 코스로 선택한 곳은 ‘가야산 소리길’이다. 이 길은 고려시대 몽골군의 격퇴를 기원하며 만들어진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로 이어진다. 호국불교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은 장장 16년에 걸쳐 조상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 판이다. 1995년, 팔만대장경은 그 고귀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로 향하는 소리길은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로 정평이 나 있다.



아름다운 단풍과 한적한 시골 풍광이 어우러진 길

소리길은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으며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특히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적격이다. 홍류동이란 붉은 가을 단풍 때문에 흐르는 물까지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작점인 테마파크에서 종점인 영산교까지 약 6km를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치유가 절로 된다. 아름답리 푸른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청량감마저 더해지는 이 길은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준다.

가야산까지 내려가는 길 주변에는 벌써 가을 풍경이 완연하다. 가야산 입구에 다다르자 오색 단풍 옷으로 갈아입은 우뚝 솟은 봉우리가 우리를 반겨준다. 축제가 한창인 대장경테마파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소리길 시작점으로 향한다. 소리길 표지석 아래에 새겨진 ‘우주만물과 소통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완성된 세계를 향하는 깨달음의 길’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는다. 처음 시작 구간은 한적한 시골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길이다. 고개를 숙인 벼들이 황금물결을 이루며 바람소리를 들려준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있는 감나무에는 잘 익은 감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다. 어디선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을 강아지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조그만 마을에 웅기충기 모여 있는 가옥들을 지나니 숲길의 시작점인 소리길 탐방지원센터가 눈에 들어온다. 길가에는 숲에 대한 궁금증



을 풀어주는 다양한 안내판들이 늘어서 있다. 때죽나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은 나무는 열매를 찢어 물에 풀면 물고기를 떼로 죽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한다. 조상들의 재치가 정말 기발하다.

자연의 소리와 오색 단풍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옆으로 누운 채 명상에 잠겨있는 석불님이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소리길에서 명상에 잠긴 채 세월 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다. 흙길을 따라가다 보니 글이 새겨진 돌판 여러 개가 눈길을 끈다. 이어질 듯 알 수 없는 내용의 글자들이 나란히 씌어있다. 사람의 장기가 이어진 글 판에서 ‘공팔’이 먼저 보이니 아마도 직업병인가 싶다. 글판을 읽으면서 걷다 보면 조그만 연못에 놓인 징검다리가 눈에 들어온다.

계곡을 따라 굽게 물든 단풍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수면 위에 비춰진 모양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4번 넘나드니 해인사 일주문이 눈앞이다. 햇빛에 반사된 새빨간 단풍잎의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다. 다시 숲길로 들어서니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의 자취가 남아 있는 농산정이 계곡과 함께 우리를 반겨준다. 자연의 소리를 벗 삼아 명상에 잠겨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다. 길을 따라 언덕 끝에 오르자 멀리 산봉우리의 단풍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나무 데크로 조성된 길에 그림 같은 단풍이 어우러지니 모두들 작품사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는 어른들을 보니 나이를 거꾸로 먹는 기분이다. 해인사 갈림길에서 치인교로 향하는 길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다. 주차장을 둘러싼 은행나무들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며 3시간의 걷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건강 TIP 흡연은 신장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흡연은 신장 기능을 보다 빠르게 악화시키고 단백뇨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발병위험도가 신장암 2배, 방광암 4배가량 높습니다.



순 천 향 대 학 교

세계 석학 초청 ‘글로벌 교육 포럼’ 개최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10월 19일 인문과 학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제로 6개국 12개 대학의 석학들을 초청해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 및 심포지엄

(Global Learning Innovation Forum and Symposium 2017, GLIFS 2017)은 교육부, 충청남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포럼 및 심포지엄은 미국의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MIT를 포함해 독일 베를린공과대학, 캐나다 워털루대학, 일본 호세이대학, 중국의 남경대학, 러시아 태평양주립의과대학 등 선진 대학 석학들이 대학교육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전개했다. 서교일 총장도 이날 환영사와 함께 순천향대가 추진하는 나눔 교육 및 앙뜨레프레너십 혁신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과 사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철학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과총 충남지역연합회 포럼 발표대회



순천향대학교는 10월 26일 교내 SCH미디어랩스관 205호 컨퍼런스룸에서 '한국과총 충남지역연합회 포럼·발표대회'가 충남지역 중고교 교사 및 사업에 참여한 중고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3D프린팅, 인공지능과

의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남지역연합회, 한국융합학회, 순천향대 창의디자인센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희중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핀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3D프린팅 기술 교육·설계에 관한 경험 발표, 미국 청소년들을 위한 IBM프로그래밍 T.Jbot 왓슨 로봇제작과 wi-fi환경에서 프로그램 코딩 및 운영 등을 통해 IBM 왓슨 기술경험 발표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스라엘 환자맞춤형 의하자 초청 글로벌 워크숍 개최



순천향대학교 산하기관인 생명연구원은 10월 23일 천안시 봉명동 소재 연구원에서 국내 환자맞춤형 의학연구에 관한 워크숍(Workshop in Personalized Medicine : Insights from G-INCPM at WIS)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와이즈만-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에 위치한 국립 '환자맞춤형 의학센터'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첨단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소개 및 협력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정고 와이즈만-순천향 조직재생연구센터장은 "궁극적으로 공동 협력 연구를 통한 환자맞춤형 의학 기반 신약 및 치료 기술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 천 향 대 학 교 중 앙 의 료 원

순천향 '인간사랑' 설립이념 가슴에 새겨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 사업회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 사업회(이사장 이상중)는 10월 12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CEO 강의실에서 2017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기념 사업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 및 간호대 16명, 기타 단과대 36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 1명, 연세대학교 의과대 1명 등 총 54명의 학생에게 총 59,399,000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증서를 받게 된 김은빈(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학생은 "영어 회화 공부와 의료영상 처리 연구 등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컸지만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서석조 박사님이 보여주신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받은 만큼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故 향설 서석조 박사의 인술과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 설립한 기념 사업회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펼쳐 올해까지 565명의 학생에게 1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순 천 향 대 학 교 서 울 병 원

손가락 통증, 류마티스관절염일까? 류마티스 질환 강화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0월 21일(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신관1층 청원홀에서 '손가락 통증, 류마티스관절염일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대한 류마티스 학회 골드링캠페인의 일환으로 △ 류마티스관절염의 조기증상과 치료(김윤석 류마티스내과 교수) △ 류마티스관절염의 발 관리와 수술 시기(천동일 정형외과 교수) △ 류마티스관절염에 좋은 항산화 식품(윤수진 영양팀장)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김현숙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은 "손가락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3주 이상 손가락이나 여러 관절이 붓고 아픈 경우 류마티스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며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배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험부스, 스피드 퀴즈로 호응 감염관리 중요성 제고

서울병원 "No 노출, Don't Worry, Be Safe" 감염관리의 날 행사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0월 13일 동은 대강당에서 제13회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No 노출, Don't Worry, Be Safe!"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감염관리 체험부스, 특강, 스피드 퀴즈로 다채롭게 진행했다. 식전행사로 마련한 체험부스는 병원 직원들이 직접 가운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며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안전 바늘 사용법을 익히고 형광물질을 이용한 손 위생 교육기구(글리터버그)로 손 위생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어 조문균 피부과 교수가 '옴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마지막 순서로 감염관리 스피드 퀴즈는 10개 팀이 경합을 이뤘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 13개의 답을 맞힌 소화기병센터가 금상을 받았고 별관 6층 병동이 은상을, 신생아실·분만실 연합팀이 동상을 받았다. 나머지 7개 팀에게는 노력상이 수여됐다.

제4회 류마티스-전신경화증 다학제진료 심포지엄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10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신관1층 청원홀에서 제4회 류마티스 질환-전신경화증 다학제 진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올해 심포지엄은 환자들을 위한 강의와 전문의를 위한 내용을 준비 중이다. 오전 10부터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레이노현상과 폐섬유화 관리를 다뤘다. 오후 전문의를 위한 임상진료 가이드 부분은 '전신 경화증 피부경화도 측정(mRSS)'을 주제로 김현숙 순천향대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발표를 했다. 또한 '류마티스 질환의 최신 치료 경향(New treatment concept)'을 주제로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류마티스 질환에서 보툴리눔독신 주사와 레이저요법'과 '류마티스 질환-전신경화증에서 소화기 침범의 병리'를 최천필 하늘느낌 피부과 원장과 이태희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입사 13-16년차 SCH 힐링 캠프

서울병원은 9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입사 13-16년차 교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SCH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나눔 소통, 행동유형 분석과 고객응대, 와인특강, 팀빌딩 등을 의사소통과 경청, 배려,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부서에서 입사 경력이 비슷한 또래의 동료들이 참여해 얼굴도 익히고,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 천 향 대 학 교 부 천 병 원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7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병연구소가 9월 3일 개최한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7'이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소속의 대표 교수진들이 연자로 나섰다. ▲간담 검진을 위한 표준 초음파 스캔법 마스터하기(김영석 교수) ▲위암 전구 및 초기 병변: 내시경 진단과 맞춤 치료(홍수진 교수) ▲ERCP, 이제는 담관 안을 직접 본다: SpyGlass DS 담도 내시경 시스템(문종호, 이윤나 교수) ▲갑상선결절,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치료전략 수립(이지에 교수) 등 다양한 주제의 소화기 및 갑상선 질환 강연과 내시경·초음파 시술 라이브 중계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병센터 내시경실을 견학하고, 상·하복부 초음파 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삽입술, 용종 절제술 등을 직접 실습함으로써 각 분야 전문가의 술기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희망의 씨앗·생명나눔 장기 기증 캠페인' 실시

부천병원이 9월 1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생명잇기와 함께 '희망의 씨앗·생명나눔 장기 기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내원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캠페인 홍보 책자를 배포하고 장기 이식 및 기증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명의 장기 기증 참여 서약을 이끌어냈다.



'2017 순천향 가을 국화축제' 성료

부천병원이 10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2주간 원내 행복정원에서 환자와 시민을 위한 '2017 순천향 가을 국화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순천향이 전하는 행복과 힐링'을 주제로 국화 전시를 비롯해 중창단, 트로트 가수, 걸그룹, 국악관현악단의 다채로운 음악회가 열렸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환경 사진전, 소망의 글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했



서울병원 동정

이지근 전공의 · 조성우 교수팀
대한외과학회 최우수비디오상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 외과 이지근 전공의 · 조성우 교수팀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70th Annual Congress of KSS 2017 국제학술대회'에서 'S결장암에 대한 복강경하 전방절제술'로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했다. 이지근 전공의 · 조성우 교수팀이 받은 '비디오 어워즈'는 대한외과학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총 27개 병원에서 영상을 출품했다. 최종 결선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팀을 비롯해 6편이 경합을 벌였다.



부천병원 동정

문종호 교수(소화기내과)

09.14-16 중국 아시아 태평양 웨딩도 내시경학회에서 강의
09.07-09 인도 아시아 초음파내시경학회에서 강의
09.23-26 홍콩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 주간에서 강의
10.26-27 스페인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강의
10.06-07 인도네시아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강의
10.18-19 아랍에미리트 소화기내시경 학회에서 강의

박성우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09.09-13 이탈리아 유럽 호흡기 학회에서 구연 발표

임재웅 교수(흉부외과)

09.04-06 일본 EJCEP에서 구연 발표

유창범 교수(소화기내과)

09.14-16 대만 IRCAD Taiwan Inter-ventional GI Endoscopy에서 구연 발표

10.06-07 조지아 Olympus Moscow LLC에서 구연 발표

김범태 교수(신경외과)

10.27-29 일본 ICCVS 2017에서 구연 발표

박태관 교수(안과)

10.27-29 중국 ISSCT에서 구연 발표



천안병원 동정

전성완 교수.

비만 유래 당뇨병 예측검사법 개발 착수

천안병원 내분비내과 전성완 교수가 비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당뇨병의 발병 및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검사법 개발에 나섰다. 검사법은 임신성 당뇨병 등 다양한 고위험군에서 발병 및 위험도 예측, 치료 개별화는 물론, 신개념의 당뇨병신약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 연극논문상 수상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로부터 연극논문을 수상했다. 연극논문상은 최근 2년간 국내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발표한 논문 중 최고의 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심 교수의 수상 논문은 '난치성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임상적 및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고찰'이다.

다. 이문성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매년 국화 전시,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된 ‘순천향 가을 국화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를 통해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지역 주민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구개열 환아 무료 초청 수술



부천병원이 형편이 어려운 카자흐스탄 구개열 환아를 초청해 무료 수술을 시행,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무료 초청 수술을 받은 ‘칼리예브 스름(남, 4세)’은 카자흐스탄 칠렉주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다. 아버지가 없고, 2살 때까지 어머니가 키우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보육원에 보내졌다.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갈라진 기형 질환인 구개열을 갖고 태어나 정상적인 식사를 비롯해 또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려웠다. ‘칼리예브 스름’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경기도, (사)경기국제의료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해외 환자 초청 나눔 의료 공모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어 10월 16일 한국에 입국, 18일 성형외과 김용배 교수로부

터 구개열 수술을 받았다. 이번 무료 초청 수술을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치료비 일체와 관계자 숙소를 지원했으며, 치료비는 ‘사랑의 도서 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 쓰였다. 경기도와 (사)경기국제의료협회는 항공비와 기타 경비를 부담했다. 부천병원은 2014년부터 ‘해외 환자 초청 나눔 의료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초청 환아를 포함해 총 4명이 무료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베다니마를 프란체·요양원 의료봉사

부천병원과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이 10월 28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베다니마를 프란체·요양원을 찾아 합동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베다니마들은 소외된 이웃, 장애인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공동체 마을이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베다니마를 프란체에 거주하는 행려 장애인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52명을 대상으로 144건의 진료를 시행해 순천향의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각 진료과 진료 외에도 혈압·혈당검사, 혈액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치료 등을 실시해 시설 거주자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폈으며, 전통침대 2대를 기증했다. 봉사에 함께 참여한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 회원 20명은 기관 시설 정비를 도왔다.

순 천 향 대 학 교 천 안 병 원

4층 241대 규모 타워주차장 신축



천안병원은 11월 27일부터 환자 주차불편 감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신축한다. 제2주차장(종합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주차장) 자리에 세워지는 주차타워는 주차용적 241대, 4층 규모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2대를 비롯해 이용자가 손쉽게 빈 공간을 찾을 수 있는 최신 주차·유도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주차 편의시설도 갖춘다. 주차타워 신축공사는 4월15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신축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총 주차용적은 903대에서 1064대로 161대 늘어나게 된다.

지역사회 재난대비 모의훈련 및 소방훈련 실시

천안병원은 10월 27일 지역사회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천안 소재 공장의 화재 및 건물 붕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병원에 유입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훈련은 ▲재난상황 전파 및 초기대응활동, ▲입시 환자분류소 및 중증도별 진료구역 설치, ▲환자분류 및 진료실시, ▲훈련결과 종합보고 및 총평 등 총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11월 10일에는 자체 소방훈련도 실시했다. 천안시 동남소방서와 함께 실시한 소방훈련은 훈련개시 일시를 제외한 나머지 훈련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무각본 훈련으로 진행됐다.

잘못된 식습관 정립 ‘영양의 날 행사’ 개최

천안병원 영양팀은 10월 31일 환자센터 항설송원에서 잘못된 식습관 정립을 돕기 위해 ‘영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과다한 당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

점을 맞춰 진행했으며, ▲올바른 당 섭취 영양교육 패널 및 교육자료 전시, ▲나의 단맛 기호도 알아보기, ▲저당식 사식체험, ▲탄수화물 중독 자가진단, ▲당 섭취 절감 다짐 서명, ▲다트게임과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 6개 체험 위주의 코너가 마련됐다.

詩모해, 제1회 시와 함께하는 나들이 개최

천안병원 ‘詩모해’가 10월 16일부터 2주간 병원 곳곳에서 ‘제1회 시와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詩모해는 시를 좋아하는 우리병원 교직원들의 모임. 고객경험 디자인 활동을 위해 결성됐다. 모해는 ‘모퉁이까지 해를 비추자’는 뜻으로 시를 통해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을 전파하는 모임을 상징한다. 詩모해 첫 나들이는 ▲시화전, ▲애송시 시구를 담은 엽서 보내기, ▲가을 및 천사날개 배경의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추억사진 찍기, ▲응원나무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축구단, 천안시 유관기관 축구대회 우승



천안병원 축구단(단장 오기영)이 11월 4일 천안시 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16회 천안시 유관기관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회는 천안병원, 천안시청, 천안 동남경찰서, 천안 서북경찰서, 천안 농협, 단국대학교 등 총 6개 팀이 참가해 A, B 2개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로 진행됐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이른둥이 희망파티' 열어

천안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센터장 송준환)는 11월 8일 천안시내 호텔연화장에서 ‘제4회 순천향 이른둥이 희망파티’를 개최했다. ‘이른둥이’는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희망파티는 센터에서 퇴원한 이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부모에게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행사로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열리고 있다. 금년 행사에는 15명의 이른둥이 가족이 참여해 ▲강좌, ▲체험공유, ▲레크리에이션게임 순으로 진행됐다.

교직원 대상 명사초청 특강 실시



천안병원은 11월 8일 병원강당 송원홀에서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울산의대 의학교육학과 박주현 교수의 ‘오페라에 빠지다’. 박 교수는 오페라와 클래식음악 관련 강연으로 명성이 높다. 박 교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에서 오페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페라 문외한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어내 교직원들은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순 천 향 대 학 교 구 미 병 원

운동하는 생활습관으로, 극복하는 파킨슨병! 공개강좌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 신경과 박종규 교수는 지난 10월 24일 ‘운동하는 생활습관으로 극복하는 파킨슨병’을 주제로 파킨슨병에 관심 있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공개강좌를 열었다.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운동법과 재활치료 등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커피를 직접 준비해 환자들과 함께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강좌가 끝난 후 자신의 증상과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응답과 손쉬운 어깨 스트레칭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박종규 교수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실천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고, 반복적 운동을 통해 효과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운동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걷기, 자전거 타기, 헬스,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추천하였다.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의료대응 지침서’ 발간 및 보급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응급환자 의료대응을 위한 「사고대비 물질 응급처치 지침서 II(응급의료진용)」와 「사고대비 화학물질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 I(외래진료 의료진용)」을 발간하였다.

「사고대비 화학물질 응급처치 지침서 II」는 화학물질과 화학테러를 대비한 물질 등의 알고리즘, 응급처치 매뉴얼, 응급실 대응 리스트, 환자용 물질정보시트, 환자용 후속조치 설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고대비 화학물질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지침서 I」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20종의 사고대비물질에 대해 외래진료 및 건강진단 시기와 절차, 진찰 및 검사 항목, 상급기관 전원 및 추적관찰에 관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서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 누리집(gas.schehc.or.kr) 자료실에서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화합의 장 ‘교직원 한마음 등반대회’

구미병원은 10월14일 구미 금오산에서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도 교직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산행을 통해 형형색색 물든 단풍과 풍경을 즐기고, 등반 후에는 야영장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경품 추첨,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극복의 날 표창장 수여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구미병원이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으로 치매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약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민간유공 단체로 선정되었다.

백병준 교수(이비인후과)
09.01~03 RWC 2017 구연 발표
박형국 교수(신경과)
09.01~08 스페인 IEC 포스터 발표
오재상 교수(신경외과)
09.06~13 프랑스 ESMINT 2017 학회 참석
이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09.07~12 스페인 ESMO 2017 포스터 발표
최성준 교수(이비인후과)
09.08~15 미국 AAO-HNSF 2017 포스터 발표
이종석 교수(피부과)
09.12~15 스위스 EADV 포스터 발표
이용희 교수(영상의학과)
09.15~20 덴마크 CIRSE 2017 포스터 발표
장성태 교수(루마티스내과)
09.16~20 덴마크 CIRSE 2017 학회 참석
오정은 교수(가정의학과)
09.18~22 프랑스 EUGMS 2017 포스터 발표
류지원 교수(호흡기내과)
09.18~25 몬테네그로 ERAS 학회 참석
이태훈 교수(소화기내과)
09.23~26 홍콩 APDW 2017 좌장
박종석 교수(정형외과)
10.10~13 Stryker's Champion Meeting 토론회
이태훈 교수(소화기내과)
10.11~13 일본 JDDW 2017 구연 발표
오세원 교수(영상의학과)
10.18~22 스페인 ESMRMB 2017 포스터 발표
오형근 교수(신경과)
10.19~21 일본 8th Korea-Japan Joint Stroke Conference 포스터 발표
최하영 교수(심장내과)
10.20~22 중국 Boston Scientific Symposium 학회 참석
김천속 교수(마취통증의학과)
10.20~27 미국 ASA 2017 학회 참석
김훈동 교수(안과)
10.21~27 미국 ISCEV 2017 포스터 발표
강규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10.23~27 미국 ASA 2017 학회 참석
홍성훈 교수(외과)
10.26~28 일본 CoBrCa 2017 포스터 발표
이태훈 교수(소화기내과)
10.28~29 중국 Boston Scientific Dry Lab 교육 참석
오혁진 교수(신경외과)
10.28~31 일본 ASNO 2017 포스터 발표



김재호 교수(비뇨기과)
09.11~16 캐나다 밴쿠버 세계 내분비 학회 발표
양승부 교수(영상의학과)
09.15~21 덴마크 코펜하겐 CIRSE 2017 전시발표
안지훈 교수(심장내과)
09.18~22 일본 교토 제23회 세계 신경 학회(WCN 2017)
우국현 교수(직업환경의학과)
10.23~27 미국 플로리다 주 덴버 USE 2017
이현욱 교수(심장내과)
10.26~28 일본 고베 심장 혈관 치료학(CCT)패널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의학의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호메로스에서는 인간이며 의사라고 되어있으나 훗날 전설에서는 아폴론의 아들로서 에피다우로스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반인반마이자 우수한 교육자로 유명한 케이론에 의해 양육된 그는 의학을 전수받아 명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의 병을 고쳐 주던 그는 마침내 죽은 사람까지도 소생시켜 주는 경지에 이르렀고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제우스의 분노를 사 벼락을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인 의학을 애석하게 여긴 제우스는 그가 죽은 후 그를 별로 바꾸어 오페우커스(뱀주인자리)에 앉히고 의학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뱀이 휘감겨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의학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뱀을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뱀이 껍질(허물)을 벗고 다시 젊어진다는 의미

에서 장수 또는 건강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탄생지인 에피다우로스 외에도 코스 섬과 페르가마 등에 세워졌고 그곳이 치료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 섬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지금도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 이유는 기원전 4~5세기경 이 섬 출신인 명의 '히포크라테스'가 이 마을에서 활약했기 때문이지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학교와 연구실, 병원을 겸한 신전에서 제자를 육성하고 환자를 치료하며 의학기술의 진보에 힘썼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화와 전설은 향설 서석조 박사의 순천향 철학과 분명 닮은꼴이기 때문입니다. 앙프레프레너 순천향 정신을 지향하는 후학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 됩니다. 왜일까요. 



감악산 자락의 달밤

보름달인 듯 둥근 달이 새벽 두시에 구름 사이로 비춘다
지구 표면 위 극히 작은 존재인 나
수 킬로미터 상공의 구름 커튼
펼쳐진 구름무늬가 괴괴하다
구름 뒤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이
반사하는 태양빛

달은 이제 구름을 벗어났다
망망대해의 창공에서 더 환하다
노란색 밝은 달빛
내 눈은 지구적, 우주적 규모에선 극히 작다
우주공간의 달과 태양.
지구표면의 나.
그 세 존재의 기하학적 구도
무수한 신경 집합체인 내 작은 뇌
우주의 기하학 구도와 자연의 그림이
두 개의 눈을 통해 뇌에 담긴다

먼지 같은 나와 아름답고 거대한 우주
검은 야산은 고요하다
검은 숲은 포근하다
시냇물 소리는 시원하다
망원경 속 달은 더 크다
환한 고지대와 음영 짙은 바다도 보인다

새벽 고속도로로 텅 빈 도로로 질주한다
달이 따라 온다
검게 깔려있는 먼 산 능선 위로 함께 이동한다
밤길은 고요하다
느리게 때론 빠르게 지형과 도로를 맞보고 조망한다

만종 역사 인근 새로 개통된 고가도로
새 고가도로 위로 지나가 보고
잠시 갓길에 멈추어 둘러보고
다시 거꾸로 이동해 본다
내 맘대로 차로 누벼보는 밤 도로
새로 난 도로는 언제나 시원하다
달은 지평선에 다다랐다



우성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병문안, 환자의 건강을 위해 자제해 주세요!



환자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방문으로 북적이는 병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해 주세요.



마음으로 쾌유를
응원할 수 있어요.
SNS, 문자, 영상통화로
마음을 전하세요.



손을 깨끗이 하고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